



“왜 이렇게 갑상선암이 증가 할까?”

국가 중앙 암등록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 년 기준으로 갑상선암이 모든 암종의 18.2%를 점유하여 1 위암이 될 정도로 많아 졌다고 한다. 증가율로 보면 매년 25%씩 이다. 이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왜 이렇게 증가할까?

가장 큰 원인은 옛날 초음파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발견이 안되었던 작은 1cm 미만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증가한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작은 미세 유두암인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갑상선암의 70%가, 미국은 50%가 미세유두암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점도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cm 이상 큰 암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 년 미국통계를 보면 1983 년부터 2006 년까지 1cm 미만암이 19.2%, 1~2cm 12.3%, 2~5cm 10.3%, 5cm 이상은 12% 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작은 암을 많이 발견해 내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음파검사와 세침세포검사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 작은 미세유두암을 잘 발견해 내어 갑상선암 빈도가 증가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사선 피폭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사고도 없고 그 외 방사능 피해를 입은 이벤트도 없는데 무슨 방사선 피폭이나 할 지 모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람들은 컴퓨터 촬영을 너무 자주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에서는 별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컴퓨터 촬영을 너무 자주하면 방사선이 함유된 요오드 조영제가 갑상선으로 들어가서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컴퓨터 촬영빈도와 갑상선암 발생빈도가 비례 하더라는 연구발표도 있다 (European J Radiology 2006;60:67~69).

이외에도 컴퓨터 방사선피폭과 갑상선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논문이 더 있으나 아직 정설로서 확립되지는 않고 있다 (Eur Radiol 2007;17:1352~1357, BMJ 2013;346:12360 doi: 10:1136,2310 (published May 21,2013).

그 외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 원인의 몇 몇 가능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섭취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요오드섭취가 많은 지역은 유두암이 잘 생기고 요오드결핍 지역은 여포암이 잘생기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 년전 일본의 한 연구는 여성에서 해조류를 매일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기 이전에는 1.8 배, 폐경기 이후에는 3.8 배나 유두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였다. 요오드과잉 섭취와 갑상선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2. 갑상선암 발생 원인으로 BRAF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여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30~40% 발견되는데 한국인에서는 70~80%나 발견된다. 인종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
3. 갑상선암의 가족성은 외국은 5%내외 인데 한국인은 10% 내외나 된다.
4. 만성 갑상선염이 있으면 갑상선암이 3 배정도 더 잘 생기는데 한국인은 만성갑상선염 빈도가 외국보다 매우 높다.
5. 뚱뚱한 사람에게서 갑상선암이 2~3 배 더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6. 이 밖에 전자파 피폭, 라돈피폭, 하천의 방사선오염 등도 의심되고 있으나 아직 확인 된바는 없다.

대한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초대 회장 박정수 (연세의대)
2014 년 학회 투고글